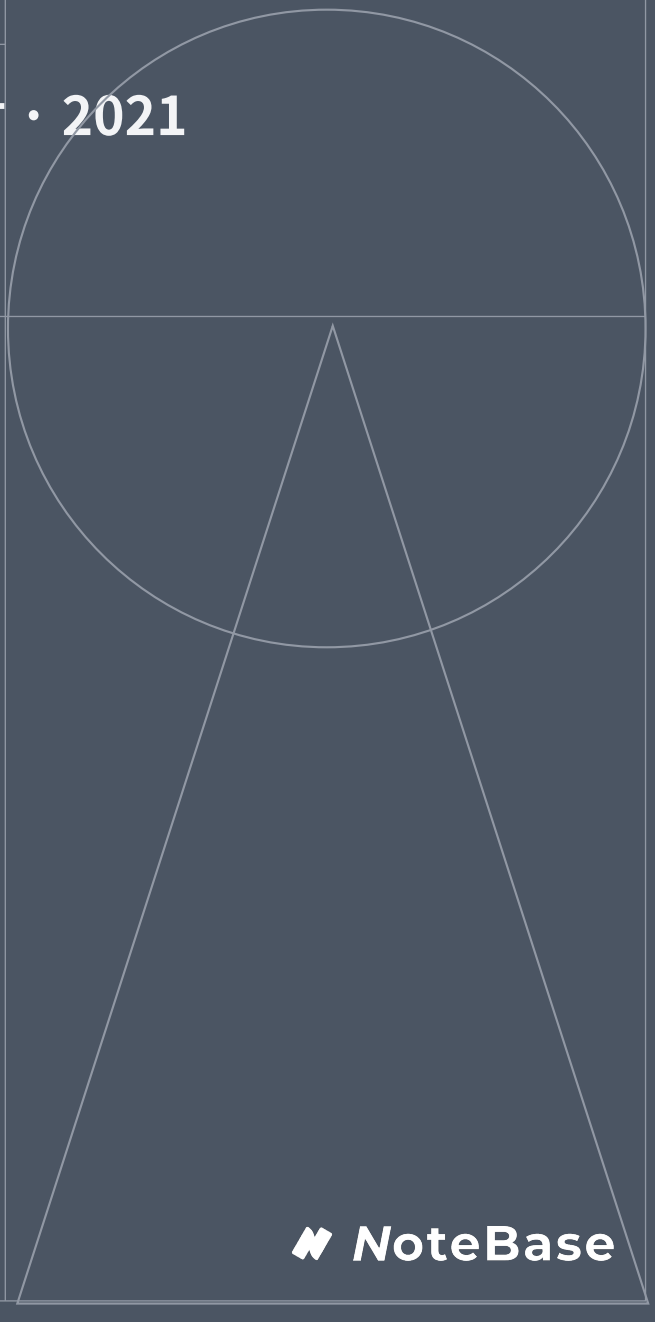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조경학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조경학 · 2021

공무원/지방직/7급 · 조경학 · 2021

문 1. 조경계획 및 설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전제에서는 개발, 설계, 시공에 대한 세부기준을 설정한다.

② 기본구상에서는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와 설계상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③ 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 동선, 시설배치, 식재, 하부구조 등에 대한 계획 방향과 내용을 제시한다.

④ 기본설계에서는 설계안이 현장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기본전제·기본구상·기본계획·기본설계의 업무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본전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제조건을 정하는 단계이다. 기본구상은 계획의 중심 아이디어와 대략적인 공간구상을 세우는 단계이다. 기본계획은 토지이용·동선·시설·식재·하부구조 등의 계획 방향과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는 단계이다.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설계의 형태와 규모를 구체화하는 단계이며, 현장 시공용 상세도는 실시설계에서 작성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세부기준'이다. 기본전제는 개발·설계·시공의 세부기준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업의 기본 방향과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설계상의 세부적인 내용'이다. 기본구상에서는 계획의 아이디어와 대략적인 구상을 정하며, 세부적인 계획 내용은 기본계획 및 그 이후 설계 단계에서 구체화된다.

③ O. 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 동선, 시설배치, 식재, 하부구조 등 주요 구성요소의 계획 방향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시공상세도'이다. 기본설계는 설계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이고, 현장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도를 작성하는 것은 실시설계 단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세부적인 내용’, ‘시공상세도’처럼 구체성의 정도가 높은 업무를 앞선 단계에 배치한 선지이다. 기본구상에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로 갈수록 계획 내용과 도면의 구체성이 높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획 과정의 각 단계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하는가’를 적용한다. 아이디어와 대략적 구상은 기본구상, 주요 공간·시설 요소의 계획 내용은 기본계획, 시공 가능한 상세도는 실시설계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구상은 아이디어, 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실시설계는 시공상세도이다.

NoteBase

문 2. 경관분석 방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분석방법의 (가) 정도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분석하였을 경우, 두 결과가 유사한가 혹은 다른가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 경관의 아름다움을 분석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가 경관의 아름다움이 아닌 친근감을 분석했다면 그 분석방법은 (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① (가) 신뢰성, (나) 타당성
② (가) 타당성, (나) 신뢰성
③ (가) 타당성, (나) 예민성
④ (가) 신뢰성, (나) 예민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관분석 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뢰성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반복 분석했을 때 결과가 일관되게 나오는 정도이다. 판단 기준은 반복 결과의 유사성이다.
타당성은 분석 방법이 처음에 측정하려 한 대상을 실제로 제대로 측정하는 정도이다. 판단 기준은 측정 대상과 결과 내용의 일치 여부이다.
신뢰성은 결과의 일관성, 타당성은 측정 대상의 정확성에 관한 개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분석한 두 결과가 유사한지를 보는 것은 결과의 일관성을 뜻하므로 (가)는 신뢰성이다. 아름다움을 분석하려 했는데 친근감이 분석되었다면 측정 대상이 어긋난 것이므로 (나)는 타당성이다.
② X. (가)를 타당성으로, (나)를 신뢰성으로 바꾼 점이 틀렸다. 반복 결과의 유사성은 신뢰성이고, 의도한 아름다움을 실제로 분석했는지는 타당성이다.
③ X. (가)를 타당성으로 쓴 점과 (나)를 예민성으로 쓴 점이 틀렸다. (가)는 신뢰성, (나)는 타당성이다. 예민성은 작은 차이나 변화에 반응하여 구별하는 능력으로, 의도한 측정 대상과 결과의 일치 여부를 뜻하지 않는다.
④ X. (나)를 예민성으로 쓴 점이 틀렸다. 반복 분석 결과의 유사성으로 (가)는 신뢰성이 맞지만, 아름다움 대신 친근감을 분석한 사례는 타당성이 없는 경우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반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묻는 문장을 보고 타당성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신뢰성의 기준이다. 반대로 '아름다움'을 재려 했는데 '친근감'을 재었다는 문장은 측정 대상 자체가 달라진 경우이므로 타당성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반복·동일 조건·결과의 유사성이 있으면 신뢰성을 판단한다. 지문에 측정하려던 대상과 실제 분석된 내용의 일치 여부가 있으면 타당성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뢰성은 반복해도 같은가, 타당성은 재려던 것을 제대로 쟀는가이다.

NoteBase

문 3. 다음과 같은 조성 과정과 설계 특성을 보이는 공원은?

◯ 유상분양 방식에 의한 자금으로 조성되었으며, 택지는 사적 주택단지와 공적 위락용지로 구분된다.
◯ 절충주의적 경향의 설계양식을 보이며, 중앙에 건물을 두지 않아 구심점이 없는 전망이 창출된다.
◯ 시민의 힘과 재정으로 설계되었으며, 옴스테드의 공원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① 리젠트 파크(Regent park)
② 하이드 파크(Hyde park)
③ 버큰헤드 파크(Birkenhead park)
④ 프로스펙트 파크(Prospect park)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유상분양으로 조성 재원을 마련하고, 옴스테드의 공원관 형성에 영향을 준 영국의 초기 공공공원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버큰헤드 파크는 조지프 팩스턴이 설계한 공공공원으로, 공원 주변 토지를 분양하여 조성비를 마련한 사례이다. 공원은 시민을 위한 공적 위락용지로 두고 주변에는 사적 주택지를 배치하였다. 버큰헤드 파크는 옴스테드에게 영향을 주어 이후 센트럴 파크를 비롯한 미국 공원 설계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리전트 파크는 존 내시가 왕세자의 계획 아래 설계한 런던의 왕실 공원이고, 하이드 파크도 왕실 공원이다.
프로스펙트 파크는 옴스테드와 보가 설계한 공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제시된 조성 방식과 옴스테드에 대한 영향은 리전트 파크의 특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리전트 파크'이며, 올바르게는 '버큰헤드 파크'이다. 리전트 파크는 존 내시가 설계한 왕세자 중심의 런던 공원 계획이다.
② X. 하이드 파크는 런던의 왕실 공원으로, 제시문의 유상분양형 공공공원 조성 사례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하이드 파크'이며, 올바르게는 '버큰헤드 파크'이다.
③ O. 버큰헤드 파크는 주변 토지 분양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공공 위락용지를 조성한 사례이며, 절충주의적 경관 구성과 옴스테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시문과 일치한다.
④ X. 프로스펙트 파크는 옴스테드와 보가 설계한 미국 공원이다. 틀린 표현은 '프로스펙트 파크'이며, 옴스테드의 공원 개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공원은 '버큰헤드 파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런던의 유명 공원이라는 이유로 ① 리전트 파크나 ② 하이드 파크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주변 토지 유상분양을 통한 재원 조달'과 '옴스테드에게 준 영향'이다. ④는 옴스테드가 설계한 공원이라는 점에서 영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원사 문항에서는 공원명만 외우지 않고 조성 주체·재원 조달 방식·설계자·후대 영향의 조합을 확인한다. 공공공원 조성비를 주변 토지 분양으로 마련하고 옴스테드에 영향을 주었다면 버큰헤드 파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버큰헤드 파크 = 주변 토지 분양 재원 + 시민 공원 + 옴스테드에 영향이다.

NoteBase

문 4. 잔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지형 잔디는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지만, 10월 초부터는 잎이 황변하면서 지상부는 휴면기에 들어간다.

②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는 잎끝이 보트형이며 국내에서는 경기장에 많이 이용된다.

③ 엽폭이 가늘고 치밀하여 골프장 그린에 식재되는 크리핑 벤트그래스(Creeping bentgrass)는 하고(夏枯) 현상에 강하다.

④ 들잔디(Zoysia japonica)는 완전포복형으로 내건성과 내한성이 강하고 녹색기간이 긴 난지형 잔디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지형·난지형 잔디의 계절 생육 특성과 주요 잔디 초종의 형태·용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지형 잔디는 서늘한 봄·가을에 생육이 왕성하고 고온인 여름에 생육이 약해지는 잔디이다. 난지형 잔디는 여름에 왕성하게 자라며 가을부터 황변·휴면하여 녹색기간이 한지형보다 짧다. 켄터키블루그래스는 한지형 잔디로 잎끝이 보트형인 것이 식별 특징이다. 크리핑벤트그래스는 잎이 가늘고 치밀하여 골프장 그린에 쓰이나 고온 장해에 약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한지형 잔디는 여름 고온기에 잎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생육이 약해지거나 하고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한지형 잔디는 여름에는 잎이 무성'이라는 표현은 난지형 잔디의 특성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켄터키블루그래스는 한지형 잔디이며 잎끝이 보트형이다. 잔디 품질과 답압 회복성이 좋아 국내 경기장 잔디로도 많이 이용된다.

③ X. 크리핑벤트그래스는 잎이 가늘고 치밀하며 골프장 그린에 식재되는 설명까지는 맞다. 그러나 고온에 약하여 하고 현상에 강한 것이 아니라 하고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하고 현상에 강하다'는 표현을 '하고 현상에 약하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들잔디는 포복경과 지하경으로 퍼지는 완전포복형의 난지형 잔디이고 내건성·내한성이 비교적 강하다. 다만 가을부터 휴면하므로 녹색기간이 긴 잔디가 아니다. '녹색기간이 긴'은 '녹색기간이 한지형 잔디보다 짧은'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한지형과 난지형의 여름 생육 특성을, ③은 크리핑벤트그래스의 고온 적응성을, ④는 들잔디의 녹색기간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들잔디의 내한성이 비교적 강하다는 일부 맞는 설명만 보고 '녹색기간이 긴'까지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여름에 왕성하면 난지형, 서늘한 계절에 왕성하면 한지형으로 나눈다. 다음으로 켄터키블루그래스의 보트형 잎끝, 크리핑벤트그래스의 골프장 그린 이용과 고온 약성, 들잔디의 가을 휴면과 짧은 녹색기간을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블루그래스는 보트형 잎끝의 한지형, 벤트그래스는 그린용이지만 하고에 약함, 들잔디는 여름형이어서 가을에 휴면한다.

NoteBase

문 5.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수종: 동백나무, 전정 시기: 춘계(3 ~ 5월), 전정 요령: 눈[芽] 바로 위를 전정

② 수종: 단풍나무, 전정 시기: 하계(6 ~ 8월), 전정 요령: 굵은 가지를 강전정

③ 수종: 무궁화, 전정 시기: 추계(9 ~ 11월), 전정 요령: 화아분화 직후 실시

④ 수종: 배롱나무, 전정 시기: 동계(12 ~ 2월), 전정 요령: 강전정을 피해 실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수종의 생장·개화 특성에 맞는 전정 시기와 강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정은 수종의 수액 이동, 새가지 발생, 화아 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한다. 봄에 수액 이동이 활발한 수종은 굵은 가지를 강하게 자르면 수세가 약해질 수 있고, 당년에 꽃이 피는 수종은 휴면기에 강전정하여 새가지를 유도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동백나무는 춘계에 전정할 수 있으며, 절단면은 남길 눈 바로 위에 두어 그 눈에서 새가지가 나오도록 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굵은 가지를 강전정'이다. 단풍나무는 하계 전정이 가능하나, 굵은 가지의 강전정은 수세를 약화시키므로 피하고 필요한 잔가지 위주로 가볍게 전정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추계(9~11월), 화아분화 직후'이다. 무궁화는 당년에 자란 가지에 꽃이 피므로 이른 봄 새눈이 트기 전에 전정하여 새가지 발생을 유도하는 것이 알맞다.

④ X. 틀린 표현은 '강전정을 피해서'이다. 배롱나무는 당년에 자란 새가지에 꽃이 피므로 동계 휴면기에 강전정하여 충실한 새가지와 개화를 유도한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모두 당년지 개화수종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이런 수종은 화아분화 직후에 자르거나 강전정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휴면기에 전정하여 새가지 생장을 촉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꽃이 전년지에 피는지 당년지에 피는지를 구분한다. 당년지 개화수종은 휴면기 전정으로 새가지를 만들고, 수액 이동이 왕성한 수종은 굵은 가지의 강전정을 피하는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무궁화·배롱나무는 당년지 개화수종이므로 휴면기 전정, 단풍나무는 굵은 가지 강전정을 피한다.

NoteBase

문 6. 다음과 같은 형태적 · 생태적 특성을 보이는 염생식물은?

◯ 해수의 영향을 받는 해안 갯벌에서 군생(群生)하는 명아주과 식물이다.
◯ 잎은 초기에 녹색에서 점차 홍자색으로 변한다.
◯ 여름에 개화하며 학명은 Suaeda japonica이다.

① 해홍나물
② 칠면초
③ 통통마디
④ 갯방풍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해안 갯벌의 염생식물인 칠면초를 생육지, 가을철 붉은 잎, 학명 Suaeda japonica로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칠면초는 해수의 영향을 받는 갯벌에 군생하는 명아주과의 일년생 염생식물이다. 결정 차이축은 학명과 생육지이며, 칠면초의 핵심 표지는 Suaeda japonica와 가을철 녹색에서 홍자색으로 변하는 잎이다. 통통마디도 갯벌에서 자라는 염생식물이지만 칠면초와는 다른 식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식물명이 '해홍나물'이라는 부분이다. 제시된 학명 Suaeda japonica와 가을철 홍자색으로 변하는 잎의 특징을 보이는 식물은 칠면초이다.

② O: 칠면초는 해수의 영향을 받는 해안 갯벌에 군생하는 일년생 염생식물이며, 잎이 녹색에서 홍자색으로 변하고 가을에 개화한다. 학명은 Suaeda japonica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식물명이 '통통마디'라는 부분이다. 통통마디도 갯벌의 염생식물이지만 Suaeda japonica가 아니며, 제시된 특징의 식물은 칠면초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식물명이 '갯방풍'이라는 부분이다. 제시된 학명과 잎의 색 변화에 해당하는 식물명은 갯방풍이 아니라 칠면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해홍나물과 통통마디도 갯벌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라는 점이 혼동 지점이다. 이 문항에서는 공통 생육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Suaeda japonica라는 학명과 가을철 홍자색으로 변하는 잎을 함께 확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갯벌 식물 식별 문항에서는 먼저 학명을 확인하고, 이어서 생육지와 잎·줄기의 계절별 색 변화를 대조한다.
학명이 Suaeda japonica이면 칠면초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칠면초 = Suaeda japonica = 갯벌 군생 = 가을 홍자색 잎이다.

NoteBase

문 7. 고려시대에 작정(作庭)된 것으로 알려진 청평 문수원정원의 영지(影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의 방지(方池)이며 내부 3개의 돌은 삼신선산(三神仙山)을 상징한다.

② 청평사 북쪽에 있어 북지(北池)라고도 하며 남북 축의 종단 길이는 약 20m, 수심은 약 70cm이다.

③ 고문헌 기록으로 볼 때, 영지의 주요 기능은 북쪽 산봉인 부용봉(芙蓉峯)을 투영(投影)하기 위함이다.

④ 물은 평상시에도 동남쪽 모서리의 폭 27cm의 도랑으로 항상 출수(出水)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청평사 문수원정원 영지의 평면 형태·위치·수리 방식과 조영 목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영지는 청평사 남쪽에 조성된 연못으로 남지라고도 한다. 영(影)은 그림자라는 뜻으로, 이 연못은 배후의 부용봉을 수면에 비추어 경관을 이루도록 조영되었다.
평면은 직사각형 방지가 아니라 마름모꼴에 가깝고, 물은 동남쪽 모서리의 석공을 통해 들어온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직사각형의 방지'이다. 영지의 평면은 마름모꼴에 가깝다. 연못 안의 세 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평면을 직사각형 방지라고 할 수 없다.

② X. 틀린 표현은 '청평사 북쪽', '북지'이다. 영지는 청평사 남쪽에 있어 남지라고도 한다.

③ O. 고문헌 기록으로 볼 때 영지는 북쪽 산봉인 부용봉을 수면에 투영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출수된다'이다. 동남쪽 모서리의 폭 27cm 돌구멍은 물이 나가는 출수구가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연못 안의 세 돌이라는 세부 요소를 이용해 평면 형태를 직사각형으로 바꾸었고, ②는 남지와 북지를 뒤바꾸었다. ④는 동남쪽 돌구멍의 물 흐름을 입수와 출수로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정원 연못 문제에서는 명칭의 방향 단서, 평면 형태, 물의 입·출수 방향, 수면에 비추는 대상 순서로 대조한다. 영지라는 명칭이 나오면 '그림자를 비추는 연못'이라는 기능부터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청평사 영지 = 남지·마름모꼴·부용봉 투영·동남쪽 입수구이다.

NoteBase

문 8. 입면녹화 시 '줄기감기형' 식재수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Lonicera japonica

② Akebia quinata

③ Wisteria floribunda

④ Parthenocissus tricuspidata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입면녹화용 덩굴식물의 지지물 부착 방식, 즉 줄기가 지지물을 감는 줄기감기형과 흡반으로 벽면에 붙는 흡착형의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줄기감기형은 줄기 자체가 지지물을 나선형으로 감아 올라가는 덩굴식물이다. 반면 흡착형은 덩굴손 끝의 흡반 등으로 벽면에 부착하여 올라가는 식물이다. 인동, 으름덩굴, 등나무는 줄기감기형이고, 담쟁이덩굴은 흡반을 이용하는 흡착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Lonicera japonica는 인동으로, 줄기가 지지물을 감아 오르는 덩굴식물이다. '줄기감기형 식재수종으로 옳지 않다'가 아니라 줄기감기형 식재수종으로 적합하다.
② X. Akebia quinata는 으름덩굴로, 줄기가 감아 올라가는 줄기감기형이다. '줄기감기형 식재수종으로 옳지 않다'가 아니라 줄기감기형 식재수종으로 적합하다.
③ X. Wisteria floribunda는 등나무로, 줄기가 지지물을 감아 생장하는 줄기감기형이다. '줄기감기형 식재수종으로 옳지 않다'가 아니라 줄기감기형 식재수종으로 적합하다.
④ O. Parthenocissus tricuspidata는 담쟁이덩굴로, 덩굴손 끝의 흡반으로 벽면에 부착한다. 줄기감기형이 아니라 흡반을 이용하는 흡착형이므로 줄기감기형 식재수종으로는 옳지 않다.

오답 포인트

담쟁이덩굴도 벽면을 타고 오르므로 줄기감기형으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오르는 모습이 아니라 지지물에 붙는 기관을 구분해야 하며, 담쟁이덩굴은 줄기가 아니라 덩굴손의 흡반으로 부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덩굴식물은 줄기 자체가 감기면 줄기감기형, 덩굴손이나 흡반으로 붙으면 흡착형으로 판단한다. 식물의 국명과 학명을 연결한 뒤 부착 방식을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인동·으름·등나무는 줄기로 감고, 담쟁이덩굴은 흡반으로 붙는다.

NoteBase

문 9.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상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10% 이상, 20% 미만의 수목 고사(枯死)'로 판정된 지급품 수목식재의 보수의무 조치로 옳은 것은? (단, 규격은 $H5.0m$ 이하, $R30cm$ 이내이며 발주자와 수주자 간의 별도 합의는 없음)

① 전량 하자보수 면제

②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③ 5%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나머지는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④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나머지는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지급품 수목식재에서 법정하자보수기간 안에 발생한 고사율별 보수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고사율이 10% 미만인지, 10% 이상 20% 미만인지, 20% 이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지급품 수목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식재하게 하는 수목이다. 고사기준율은 수종별·규격별 전체 수량에 대한 고사 수량의 비율이다.

핵심 구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지급 수목재료 보수기준에 따르면, 고사율이 10% 미만이면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 10% 이상 20% 미만이면 10% 이상의 분량만 지급품으로 보수한다. 20% 이상이면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하고,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고사율이 10% 이상 20% 미만이므로 전량 면제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 전량 하자보수 면제
올바른 표현: 고사율 10% 미만일 때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

② O
고사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지급품 수목은 10% 이상의 분량만 지급품으로 보수한다.

③ X
지급품으로 보수하는 기준을 5% 이상으로 낮춘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5%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올바른 표현: 10% 이상 20% 미만이면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한다.

④ X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수급인이 보수하는 부분은 고사율이 20% 이상일 때의 20% 초과분에 적용된다. 이 문항의 고사율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나머지는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올바른 표현: 고사율 20% 이상일 때 20% 이상의 분량을 수급인이 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보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전량 면제는 10% 미만 구간의 기준이고, ④의 수급인 부담 보수는 20% 이상 구간의 기준이다. 10% 이상 20% 미만 구간에 두 기준을 섞는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고사율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으로 나눈다. 이어서 10% 이상 20% 미만이면 지급품 보수만 적용하고, 수급인의 동일 규격 수목 보수는 20% 이상에서만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10% 미만은 면제, 10~20%는 지급품, 20% 초과분은 수급인 부담이다.

NoteBase

문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국립수목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① 산림청장

② 환경부장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④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상 국립수목원의 조성·운영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수목원의 구분을 조성·운영 주체로 나누어 판단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이다.

핵심 구분

현행 법 제4조는 수목원을 그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학교수목원으로 구분하며, 그중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이다. 공립수목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한다는 점과 구별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산림청장은 법에서 정한 국립수목원의 조성 · 운영 주체이다.

② X
환경부장관은 국립수목원의 법정 조성 · 운영 주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 환경부장관
올바른 표현: 산림청장

③ X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 · 운영한다.
틀린 표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올바른 표현: 산림청장

④ X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립수목원의 법정 조성 · 운영 주체가 아니다.
틀린 표현: 국토교통부장관
올바른 표현: 산림청장

오답 포인트

③처럼 산림청의 상급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고르면 안 된다. 법문은 주체를 산림청장으로 직접 정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목원의 명칭 앞에 국립 · 공립 · 사립 · 학교가 붙으면 먼저 조성 · 운영 주체를 대응한다. 국립은 산림청장, 공립은 지방자치단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립수목원 = 산림청장, 공립수목원 = 지방자치단체이다.

NoteBase

문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제공원으로 분류된다.

②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③ 설치기준과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다.

④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는 도시텃밭의 면적을 포함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농업공원의 법령상 분류, 설치·유치거리 기준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도시텃밭 면적을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이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하며, 도시텃밭은 이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핵심 구분

도시농업공원은 생활권공원이 아니라 주제공원에 속한다. 시행규칙 별표 3은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과 유치거리를 모두 제한 없음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4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공원면적의 100분의 40 이하로 정하고, 그 산정에서 도시텃밭 면적은 제외하도록 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도시농업공원은 주제공원으로 분류된다.
② O: 도시농업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공원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이다.
③ O: 도시농업공원은 설치기준과 유치거리에 제한이 없다. 다만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이 별도로 있다.
④ X: '도시텃밭의 면적을 포함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도시농업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도시텃밭의 면적은 제외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도시텃밭이 도시농업공원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포함된다고 오인하게 한다. 도시텃밭은 생태적 성격을 고려하여 산정에서 제외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농업공원이 나오면 먼저 주제공원인지 확인하고, 이어서 '설치기준·유치거리 제한 없음', '공원시설 부지면적 100분의 40 이하', '도시텃밭 면적 제외'를 한 묶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도시농업공원: 주제공원, 40% 이하, 텃밭은 빼고 산정한다.

NoteBase

문 12. 전체 지역의 하수를 어떤 한정된 곳으로 집중시키거나 지형이 한 방향으로만 집중된 경사를 이루는 곳에서 배수계통을 나뭇가지형으로 설치하는 방식은?

① 선형식
② 차집식
③ 방사식
④ 집중식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지형의 경사 방향과 하수의 집수 지점에 따라 구분하는 배수계통 방식 중 선형식의 적용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형식은 전체 지역의 하수를 한정된 한 곳으로 모으거나 지형 경사가 한 방향으로만 형성된 곳에서, 지선이 본관으로 합류하는 나뭇가지형 계통을 이루는 방식이다.
차집식은 기존 관거의 하수를 차집관으로 받아 이송하는 방식이며, 방사식은 중앙의 높은 곳에서 주변으로 배수 방향이 방사상으로 나뉘는 지형에 맞는다. 집중식은 주변보다 낮은 중심부로 하수가 모이는 지형에 맞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한정된 지점으로 하수를 모으거나 경사가 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배수계통을 나뭇가지형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은 선형식의 특징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차집식'이다. 차집식은 하수를 차집관으로 받아 이송하는 방식이고, 지문의 한 방향 경사·나뭇가지형 계통은 선형식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방사식'이다. 방사식은 중앙의 높은 곳에서 주변 여러 방향으로 배수되는 방사상 지형에 적용되며, 지문의 한 방향 집중 경사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선형식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집중식'이다. 집중식은 주변의 하수가 낮은 중심부로 모이는 지형에 적용되며, 지문의 한 방향 경사에 따른 나뭇가지형 계통은 선형식이다.

오답 포인트

'한곳으로 모은다'는 말만 보고 ④ 집중식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지문은 '경사가 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나뭇가지형'으로 설치된다는 구조까지 제시하므로 선형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형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확인한다. 경사가 한 방향이고 지선이 본관으로 차례로 합류하면 선형식, 중앙에서 사방으로 퍼지면 방사식, 주변에서 중앙으로 모이면 집중식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 방향 경사·나뭇가지형은 선형식, 중심에서 사방은 방사식, 사방에서 중심은 집중식이다.

NoteBase

문 13. 다음의 구근(球根) 식물 중 비늘줄기 형태가 아닌 것은?

① 꽃무릇(석산)
② 프리지어
③ 수선화
④ 백합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근식물의 지하 저장기관 가운데 비늘줄기와 알줄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늘줄기는 짧은 줄기 둘레에 비늘 모양의 다육질 잎이 겹쳐 저장기관을 이룬 형태이다. 백합·수선화·꽃무릇이 이에 해당한다. 알줄기는 줄기 자체가 단단하게 비대한 형태이며, 프리지어가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꽃무릇(석산)은 비늘 모양의 다육질 잎이 겹친 비늘줄기를 가진다.
② X: 프리지어는 비늘줄기가 아니라 줄기 자체가 비대한 알줄기를 가진다. 틀린 표현은 '비늘줄기'에 포함시킨 점이며, 올바르게는 '프리지어는 알줄기 식물이다'이다.
③ O: 수선화는 다육질 비늘잎이 겹친 비늘줄기를 형성한다.
④ O: 백합은 대표적인 비늘줄기 식물로, 여러 장의 비늘잎이 겹쳐 저장기관을 이룬다.

오답 포인트

프리지어도 구근식물이므로 비늘줄기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구근식물은 비늘줄기·알줄기·뿌리줄기·괴경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고, 프리지어의 세부 형태는 알줄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장기관이 겹친 다육질 잎으로 이루어지면 비늘줄기, 줄기 자체가 단단하게 비대하면 알줄기로 판단한다.
백합·수선화·꽃무릇은 비늘줄기, 프리지어는 알줄기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백·수·꽃은 비늘, 프리(프리지어)는 알줄기이다.

NoteBase

문 14. 옹벽의 배수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도한 지하수를 모아 처리하는 배수구를 옹벽 저부에 설치한다.

② 토양 내 수분이 과잉포화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옹벽 배면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옹벽 상단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표면수의 침투를 차단한다.

④ 옹벽의 뒤채움 시 다짐 및 배수가 용이한 자갈 또는 쇄석을 사용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옹벽 배수의 목적과 배수시설의 위치, 그리고 뒤채움 재료의 기본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옹벽 배면에 물이 고이면 토압과 수압이 커지므로 물의 유입을 막고 고인 물을 배출해야 한다.

핵심 개념

배수로는 옹벽 상단에서 표면수가 배면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배수구와 배수관은 배면이나 저부에 모인 물을 밖으로 빼내 수압을 줄이는 시설이다. 뒤채움은 배수성만이 아니라 충분한 다짐성과 안정성을 함께 갖춘 재료와 시공으로 확보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옹벽 저부에는 배면으로 모인 지하수 등을 모아 배출하는 배수시설을 두어 수압을 줄인다.
② O. 토양이 과잉포화되거나 옹벽 배면에 수압이 작용하면 옹벽의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배수의 핵심 목적은 이를 방지하는 데 있다.
③ O. 옹벽 상단의 배수로는 지표수가 옹벽 뒤쪽으로 흘러들어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자갈 또는 쇄석을 사용한다'라고 재료를 단정한 부분이다. 뒤채움은 배수만을 기준으로 자갈·쇄석을 일률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짐성과 배수성을 함께 만족하는 양질의 뒤채움토로 시공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다짐성과 배수성이 확보되는 적절한 뒤채움 재료를 사용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자갈과 쇄석이 배수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맞는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는 뒤채움 재료를 배수성만으로 단정한 표현이 함정이며, 실제 원칙은 다짐성·안정성·배수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옹벽 배수 선지는 물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상단에서는 표면수 유입을 막고, 배면과 저부에서는 고인 물을 배출하며, 뒤채움에서는 배수성과 다짐성을 함께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상단은 유입 차단, 배면·저부는 배수, 뒤채움은 배수성과 다짐성을 함께 확보한다.

NoteBase

문 15. 조경공사 혹은 생태복원녹화에 재활용될 표토(表土)를 채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능한 한 습윤상태에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③ 채취두께는 사용 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에서 채취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공사 또는 생태복원녹화에서 재활용할 표토를 채취할 때의 적정한 토양 수분 상태와 현장 조건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토 채취는 식생 생육에 유리한 유기물과 종자 등이 포함된 상부 토양을 보전·재활용하기 위해 걷어 내는 작업이다.
표토는 과습하면 장비 통행으로 다져지고 흙덩이가 뭉치며 토양 구조가 훼손되므로, 과습하지 않은 적정한 함수 상태에서 채취한다.
지하수위, 작업 장비의 성능·안전, 토사 유출 위험은 채취 여부·두께·장소를 정하는 주요 조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능한 한 습윤상태'라는 표현이 틀렸다. 표토가 지나치게 습하면 장비에 의해 다짐과 교란이 커지므로, 과습하지 않은 적정한 함수 상태에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O.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는 배수 불량과 습윤 상태가 생기기 쉬워 표토 채취를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채취두께는 표토층의 상태뿐 아니라 사용하는 기계의 작업 능력과 작업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정한다.
④ O. 표토를 벗겨 낸 뒤 토사가 유출되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해 방지상 문제가 없는 구역에서 채취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습윤상태'가 표토 보전에 좋다고 보이게 하는 함정이다. 표토는 수분이 너무 많으면 작업 중 다짐·교란이 커지므로, 습윤 여부가 아니라 과습하지 않은 적정 수분 상태인지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토 채취 선지는 토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방향인지 확인한다. 과습, 높은 지하수위, 토사 유출 위험, 장비 안전 저해처럼 토양 훼손이나 작업 위험을 키우는 조건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암기 포인트

표토 채취는 '과습은 피하고, 지하수·안전·유출을 점검한다'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6. 비탈면 녹화공법이 아닌 것은?

① 스프리그스프레이공
② 차폐수벽공법
③ 가비온공
④ 소단상객토식수공법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비탈면에 식생을 도입·정착시키는 녹화공법과 비탈면을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공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탈면 녹화공법은 종자·줄기·묘목 등을 이용하여 비탈면에 식생을 정착시키는 공법이다. 반면 가비온공은 철망에 돌을 채운 돌망태로 토사를 지지하거나 세굴·붕괴를 막는 구조물 공법이다.
스프리그스프레이공·차폐수벽공법·소단상객토식수공법은 식생을 도입하는 공법이고, 가비온공은 돌망태 구조물 공법이라는 점이 결정 차이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스프리그스프레이공은 잔디 등의 영양번식체인 스프리그를 살포하여 식생을 정착시키는 비탈면 녹화공법이다.
② O: 차폐수벽공법은 수목을 식재하여 비탈면을 녹화하고 차폐 기능을 확보하는 공법이므로 비탈면 녹화공법에 해당한다.
③ X: 가비온공은 철망에 돌을 채운 돌망태로 비탈면을 보호·안정시키는 구조물 공법이다. 틀린 표현은 '비탈면 녹화공법'이라는 분류이며, 올바르게는 '돌망태를 이용한 비탈면 보호·안정 공법'이다.
④ O: 소단상객토식수공법은 비탈면의 소단에 객토를 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녹화하는 공법이다.

오답 포인트

③도 비탈면에 시공하므로 녹화공법으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가비온공의 직접 목적은 식생 정착이 아니라 돌망태에 의한 토사 지지와 비탈면 보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법명에 종자·스프리그·식재·객토처럼 식생 도입을 뜻하는 말이 있으면 녹화공법으로 판단한다.
돌망태·옹벽·블록처럼 구조물로 지지·보호하는 공법이면 녹화공법과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식생을 심거나 뿌리면 녹화, 돌망태로 받치면 가비온공이다.

NoteBase

문 17. 화강석 표면이 가장 곱게 가공되는 손가공 마감처리 방식은? (단, 화강석의 두께는 80mm 이상)

① 혹두기 마감

② 정다듬 마감

③ 잔다듬 마감

④ 도드락다듬 마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화강석 손가공 마감의 표면 거침 정도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혹두기는 쇠망치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따내 혹을 남기는 마감이다. 정다듬은 정으로 쪼아 낸 흔적을 남기는 마감이다. 도드락다듬은 도드락망치로 표면에 점상 타격 흔적을 내는 마감이다. 잔다듬은 잔다듬망치로 미세하고 촘촘한 타격을 가해 네 방식 중 가장 고운 표면을 만드는 마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혹두기 마감은 표면에 큰 혹 또는 작은 혹을 남기는 거친 마감이다. 틀린 표현은 '가장 곱게'에 해당하는 선택이라는 점이며, 혹두기는 가장 거친 계열의 마감으로 이해한다.
② X. 정다듬 마감은 정으로 표면을 쪼아 가공하므로 잔다듬보다 타격 흔적이 굵고 표면이 거칠다. 틀린 표현은 '가장 곱게'이며, 정다듬보다 더 고운 마감은 잔다듬이다.
③ O. 잔다듬 마감은 미세하고 촘촘하게 다듬어 네 선택지 가운데 화강석 표면을 가장 곱게 가공한다.
④ X. 도드락다듬 마감은 도드락망치로 점상 요철을 내는 방식이므로 잔다듬보다 표면이 거칠다. 틀린 표현은 '가장 곱게'이며, 가장 고운 손가공 마감은 잔다듬이다.

오답 포인트

'다듬'이라는 말만 보고 정다듬이나 도드락다듬을 고운 마감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표면의 타격 흔적이 가장 미세하고 촘촘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강석 손가공 마감은 혹을 남기는 혹두기에서 거칠게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미세한 타격을 반복하는 잔다듬이 가장 고운 표면을 만든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혹두기=혹이 남아 거침, 잔다듬=잔 타격으로 가장 고움이다.

NoteBase

문 18. 레크리에이션 이용강도의 조절을 위한 기법 중 '직접적 이용제한'에 해당되는 것은?

①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inform users)

② 구역별 이용(zone use)

③ 물리적 시설의 개조(alter physical facilities)

④ 자격요건의 부과(set eligibility requirement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레크리에이션 이용강도 조절 기법에서 직접적 이용제한과 간접적 이용제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적 이용제한은 이용 장소·활동·강도를 관리자가 직접 제한하는 방법이다. 구역별 이용, 예약제에 의한 이용강도 제한, 활동 제한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적 이용제한은 시설·정보·비용 조건을 조정하여 이용을 우회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이다. 물리적 시설의 개조, 이용자 정보 제공, 자격요건 부과가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이용자의 자발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간접적 이용제한이다. 틀린 표현은 '직접적 이용제한'이며, 올바르게는 '간접적 이용제한'이다.
② O. 구역별 이용은 이용 가능한 공간을 구분하여 특정 구역의 이용을 직접 배분·제한하므로 직접적 이용제한에 해당한다.
③ X. 물리적 시설의 개조는 시설 조건을 바꾸어 이용을 조절하는 간접적 이용제한이다. 틀린 표현은 '직접적 이용제한'이며, 올바르게는 '간접적 이용제한'이다.
④ X. 자격요건의 부과는 입장료나 이용요금의 차등화처럼 이용 조건을 통해 이용을 우회적으로 조절하는 간접적 이용제한이다. 틀린 표현은 '직접적 이용제한'이며, 올바르게는 '간접적 이용제한'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자격요건'은 이용자를 바로 배제하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이 분류에서는 비용·이용 조건을 통한 간접적 이용제한으로 분류한다. 정보 제공과 시설 개조도 직접 통제가 아니라 간접 조절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리자가 구역·활동·이용강도를 바로 정하면 직접적 이용제한으로, 시설·정보·요금·이용 조건을 매개로 이용을 바꾸면 간접적 이용제한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직접은 '구역·예약·활동 제한', 간접은 '시설·정보·요금 조건'이다.

NoteBase

문 19. 도시 내 종다양성, 물질순환, 단절된 녹지 간 네트워크의 지속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도시숲 유형은?

① 환경보전형

② 환경조절형

③ 경관형성형

④ 생태계보전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숲 유형 중 생물다양성 유지와 생태적 연결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태계보전형은 도시 안의 생물종 다양성, 물질순환, 녹지축의 연결을 유지·회복하여 생태계가 지속되게 하는 도시숲이다.
환경보전형은 대기오염·소음 등 환경오염을 줄여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환경조절형은 기온·습도·바람 등 도시의 미기후를 완화·조절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관형성형은 도시 경관의 미관과 조망을 형성·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X. 이 문항의 목적을 환경보전형으로 보는 부분이 틀린 표현이다. 환경보전형은 오염 저감 등 생활환경의 보전에 중점을 두며, 종다양성·물질순환·녹지 네트워크의 지속성 향상은 생태계보전형의 목적이다.
② X. 이 문항의 목적을 환경조절형으로 보는 부분이 틀린 표현이다. 환경조절형은 도시 열섬 완화, 바람길 확보 등 미기후 조절이 중심이며, 올바르게는 생태계보전형이다.
③ X. 이 문항의 목적을 경관형성형으로 보는 부분이 틀린 표현이다. 경관형성형은 미관·조망 등 경관의 형성이 중심이며, 단절된 녹지의 연결과 생태계 지속성 향상은 생태계보전형이다.
④ O. 종다양성, 물질순환, 단절된 녹지 간 네트워크의 지속성은 모두 도시 생태계의 보전·복원과 연결되는 요소이므로 생태계보전형이 맞다.

오답 포인트

‘환경보전’이라는 말이 생태 보전과 비슷하게 들리는 점이 함정이다. 이 문항에서는 오염 저감이나 쾌적성보다 종다양성·물질순환·녹지 연결성이 제시되었으므로 생태계보전형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시숲의 목적에서 생물종, 서식처, 생태축·녹지 네트워크, 물질순환이 나오면 생태계보전형을 고른다.
기온·바람·습도는 환경조절형, 미관·조망은 경관형성형, 오염 저감은 환경보전형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종·순환·연결은 생태계보전형이다.

NoteBase

문 20. 조경계획의 수요예측 방법 중 정성적 예측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과모형

② 시계열분석법

③ 공간상호작용모형

④ 시나리오설정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계획의 주요 수요예측 방법 중 정성적 예측법에 해당하는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성적 예측법은 과거 자료의 통계적 분석보다 전문가의 판단·직관을 바탕으로 미래에 가능한 상황을 구성하여 전망하는 비분석적(주관적) 방법이다. 시나리오 설정법은 가능한 미래 상황을 여러 시나리오로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므로 정성적 예측법에 속한다. 반면 인과모형은 변수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이용하고, 시계열분석법은 과거 시계열의 추세를 이용하며, 공간상호작용모형은 공간 간 이동·교류 관계를 이용하는 정량적(분석적) 예측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인과모형은 인구, 소득, 시설 수요처럼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미래 값을 예측한다. 틀린 표현은 '정성적 예측법'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인과관계에 근거한 정량적(분석적) 예측 방법이다.
② X - 시계열분석법은 과거 관측값의 추세·주기·변동을 바탕으로 미래를 추정한다. 틀린 표현은 '정성적 예측법'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과거 자료의 시간적 흐름을 이용하는 정량적 예측 방법이다.
③ X - 공간상호작용모형은 지역·시설 사이의 거리, 접근성, 이동 또는 이용 관계를 이용하여 공간적 수요와 흐름을 예측한다. 틀린 표현은 '정성적 예측법'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공간 관계를 분석하는 정량적 예측 모형이다.
④ O - 시나리오 설정법은 서로 다른 미래 상황과 정책 조건을 설정한 뒤 각 상황의 결과를 비교·전망한다. 전문가 판단에 기반해 불확실한 미래의 대안을 검토하는 정성적 예측법이다.

오답 포인트

①~③도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과거 자료, 변수 관계, 공간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심이 있고, ④는 미래 상황을 여러 가능성으로 구성한다는 데 중심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과거 추세가 나오면 시계열분석법, 원인 변수의 관계가 나오면 인과모형, 지역 간 이동·접근성이 나오면 공간상호작용모형으로 판단한다. 여러 미래 상황과 정책 대안을 가정하여 결과를 비교하면 시나리오 설정법, 즉 정성적 예측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과거 추세는 시계열, 원인 변수는 인과, 공간 이동은 공간상호작용, 미래 상황 구성은 시나리오이다.

NoteBase